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 영암군장애인종합복지관



### “나눔 배우는 따뜻한 봉사활동 했어요”

영암군장애인복지관 ‘청소년자원봉사학교(나따봉)’ 운영

영암군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는 중·고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자원봉사학교 나따봉(나눔을 배우는 따뜻한 봉사)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자원봉사학교는 올바른 자원봉사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장애인들과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히고 인식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장애인 이해 교육 및 장애체험, 밀반찬 나눔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자원봉사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영암군장애인복지관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위한 흥미롭고 다양한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뜻깊은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청소년자원봉사학교 나따봉 프로그램을 매년 운영할 계획이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도 연중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 행동발달증진센터 추가 지정

복지부, 다음달 24일까지 전국 종합병원 대상 공모  
올해 3억5000만원 지원...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4일까지 공모를 거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2개소를 추가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자·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2016년 한양대학교병원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등 2개소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올해는 3억5000만원 지원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 따라 6개소를 추가 확대키로 하고 올해 상반기 인하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등 4개소를 새로 지정할 바 있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면 신청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진료 및 행동문제 치료와 관련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회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위원회에서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10월에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위원회는 발달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전문인력의 역량과 기관의 사업 추진 의지, 협진·행동문제 치료를 위한 사업수행 계획, 지역발달장애인지

원센터와 같은 지역사회와 협력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의료 이용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행동문제를 치료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기반”이라고 말했다.

김원호 서울취재본부장

### 중증장애인 25명 국가공무원 경력 채용

평균 38.2세

인사혁신처는 2019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 경쟁채용에서 25명을 최종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증장애인 경력 경쟁채용시험은 중증장애인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221명이 응시, 서류면접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자를 확정했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인이 16명으로 6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은 뇌병변장애 5명(20%), 신장장애 3명(12%), 청각장애 1명(4%) 순이었다.

직급별로는 7급·연구사 4명, 8급 1명, 9급 20명이다. 이들은 일반행정, 정보관리, 관세, 토목, 산림자원 등의 분야에 임용될 예정이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38.2세로 지난해의 36.7세보다 높아졌다. 최고령 합격자는 51세, 최연소 합격자는 27세다. 성별로는 남성 21명(84%), 여성 4명(16%)이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공직 내 장애인 고용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장애인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포용적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비상체제 돌입

광주시는 28일 (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제1노조가 지난 26일부터 임금협상 결렬로 부분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비상수송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휴무 운전원과 인차택시를 최대한 활용해 평상시 대비 92% 수준의 차량을 운행할 방침이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제1노조는 2019년도 임금협상 과정에서 8차례 교섭과 지방노동위 조정기간을 거

쳤지만 최종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지원센터측은 2.33% 인상을 제시한 반면, 노조측은 2020년부터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임금(총액 대비 15% 인상효과)을 주장해 이견을 보였다.

최태조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보수 수준이 전국 대비 최상위권이다”며 “위탁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협약내용에 따라 관련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 담양군, ‘힘이 죽죽(竹竹) 장애인 수중재활교실’ 수료식

매주 금요일 장애인 관절기능 회복 위해 제공



담양군 보건소는 26일 담양군민체육센터 담빛 실내수영장에서 뇌졸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관절 마디마디 힘이 죽죽 수중재활 운동교실’의 수료식을 열었다.

이번 수중재활교실은 거동이 불편한 뇌졸중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6월부터 7월 26일까지 매주 금요일 관

관절기능 회복을 위해 제공했다. 수중재활운동은 물의 부력을 이용해 체중 부담과 통증 없이 지상보다 자유롭게 운동을 가능하게 해 뇌졸중 환자 재활에 있어 최적의 효과가 있다.

하지만 관내 수중재활을 할 수 있는 전문시설은 없고 장애인 스스로 수영장 이용이 어려워 운동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군 문화체육과와 연계, 담빛수영장에서 수중재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재활 촉진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수중재활교실에 꾸준히 참석한 참가자는 “수영이랑 같 태어나서 처음 해봤는데 운동에 참여할수록 무릎에 힘이 나고 덜 아파 수영장 가는 날을 기다리게 됐다”며 소감을 전했다.

군 보건소장은 “지역사회 장애인이 체감 할 수 있는 재활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해 앞으로도 만족도 높은 재활사업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야호센터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